

社說

상호신뢰회복 이뤄내는 계기로 - 남북고위급회담에 바란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지난 21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개최됐다. 4개월여만에 재개된 이번 고위급회담은 한·중 수교, 북·일 수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 등 국제정치경제의 지형변화와 UN남북통시가입후 첫 회담이라 각계의 기대가 컸다.

지난 3차까지 회담이 쌍방간의 명분싸움인데 반해 이번 회담은 기대가 큰 만큼 몇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다. 의제단일화 합의와 함께 5가지 합의사항에 대해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앞으로 계속될 실무대담회담에 앞서 좋은 전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군사문제에 기초한 상호대담 해소는 선결로 주장해왔던 북한의 주장과 교류협력 및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등 신뢰구축을 주장한 남한의 입장이 일치한 근본적인 요인은 나뉘어 양자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한다.

즉 북한은 국제정치에서의 고립을 남한과의 회담을 진전시키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과 남한의 입장을 자구책으로 포함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회담, 교류를 하는 것보다 가시적인 성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역대 정권이 남북 회담을 정권안정화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회담이 명분상의 성과뿐 아니라 실질적인 교류가 계속 되지 않는 한 제3차만의 움직임이 될수도 있다는 오해를 남길 것이

다.

특히 남한의 경우 미국과의 전진접수국지원 협정 체결을 앞두고 저자세외교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없다.

이번 전진접수국지원협정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극대화 하는 협정으로서 미군은 다른 볼지않이 육군만 파견하고 파견된 육군에 대한 물자 지원은 남한에서 담당한다는 안이다.

이와같은 것은 남북간의 회담에서 남한이 주장하는 불가침협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이었다. 또한 남한당국은 북한에 대해 해사찰을 허용하자고 종용하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비와 같이 남한에 파견된 미군은 공중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수는 당분간 안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에 해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상과 같이 고위급회담이 외교·군사·경제적 이해관계가 남북당국간에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는 쌍방의 이해와 명분찾기에만 교류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반증한다.

진정한 통일을 위해 남북당국은 상호신뢰회복과 평화체제 수립, 비핵·평화·군축 등 실질적인 합의와 함께 이의 실천적인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상호공존체제의 확대와 자주적 교류, 통일된 국가의 '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각 체제의 우월성 시비와 명분 대립보다 하나의 국가로 가기 위한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교류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남·북 민중들의 통일외의와 교류의욕을 실현시키고 기필코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기대한다.

불의에 대한 항거에서 민족사랑으로 - 62주년 맞는 학생의 날에

6공화국들이 다시 자기 모습을 찾게된 학생의 날이 어느덧 62주년을 맞이한다.

1929년 일본학생들이 한국학생을 희롱하는 것을 보다 못한 광주교도 남학생들이 두주먹을 불끈쥐고 억눌려온 민족의 울분을 터트린것이 바로 광주학생의 날이다.

그러한 옛 선배들의 의거를 되새기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철저히 그들의 요구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었지만 당시의 청년학생들은 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열의 민감하여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고유의 성격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타는 사랑은 그 후 1960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1985년 부산 미문화원방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반미자주의의 관점을 가져야한다는 것을 범국민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87년에는 기간의 학생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받고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는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을 힘있게 건설하여 최선두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본다. 그리하여 한국사회 변혁운동에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학생대중에게 뿌리를 내렸다.

이처럼 옛 선배들의 조국사랑의 뜨거운 피는 오늘을 살아가는 학생들 모두의 가슴에도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11월 3일 학생의 날에도 기념행사가 치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년학생들의 그 특성을 심본 살리고 전제적으로 새날을 열원하는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한 밝은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단순히 예전처럼 기념식과 집회 그리고 가두로 달려나가는 기계적이고 독재적인 행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나날 할 것없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여 그동안 묻혀왔던 학생의 날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해당지역의 민주세력과 함께 연대하여 행사가 학생들만의 참여가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행사로 한층 끌어 올릴수 있어야 하며 각급 학생회에서는 1년을 반성한다는 자세로 그간의 학생회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차분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여 91년 사업을 대중적으로 총화시키는 자리로 승화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학생의 날 행사는 지난 5~6월 정국 이후 다소 침체되었던 학생운동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재충전시켜 발전의 돌파구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노동자 대회, 전교조 선전대회, 농민들의 쌀 수급지 및 쌀 재검량기 대회 등 각 계급계층의 올해 사업의 전개하는 상황속에서 청년학생들은 92년 국민들과 함께 참 세상 건설의 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옛 선배들의 반의세력투쟁을 오늘에 되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청년학생들은 가슴깊이 명심하자.

여의도 광장 살인문건, 전속력 질주 무차별 살상(한겨레 신문, 10월20일자), '출천차로 여의도광장 살인질주'(서울신문, 10월20일자), "웃자립누추"출입막아 격분 20대 농민 회발유 사와 불질러'(동아일보, 10월18일자)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된 지난 10월17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 또 연이은 10월19일 2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여의도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물론 불가지리 않는 그 공포성이 세인으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 만큼이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 두사건 모두 사회로부터 심한 소외감을 느낀 20대 청년들이 저지른 무목적대상에 대한 보복성 범죄였다. 어린이고 가리지 않고 어른고 가리지 않고 세상이 믿다는 이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그토록 잔인한 행위를 유발시킨, 그들에게 극도의 좌절

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사건보다 다음날부터 각 일간지의 사설, 논단, 칼럼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에 대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상이 왜 이리경 됐었나?'(조선일보, 10월22일자), '중앙일보 21일자 사설 "인간살상의 시대"를 생각하다' 등에서는 보복성 총동범 죄의 충격을 도덕성상실의 사회정서파괴에



충격과 당위론 강변에 그친 논평

대한 개탄들로 토로되었다. 이 감정적 여론의 충격반을 보도와 함께 사태의 원인분석이 게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경쟁적 물질사회에서의 낙오자들을 수용할 사회구조가 필요하다'는 식의 언급은 단순한 당위론일 뿐이었다. 또한 중앙일보 21일자 사설은 산업사회에서 인간성상실

후의 정치 경제 발전의 무용론을 들어 '사회정서에서 열등감만 심어가는 빈곤층에 대한 정치·경제적 배려를 기대한다'는 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집필되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이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만큼 단순한 사실 보도 이상의 사태파괴와 함께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을 파헤치는 진실보도로 이어져야 했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미국의 핵철수 발표를 보며

비핵명분 내세운 군비확장



지난 9월 27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전세계 전술핵 철거를 끝자로 하는 획기적인 핵군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동북아의 핵불보'로 수백여발의 핵무기와 더불어 살고 있던 우리에게 좋은 하기에 너무 열렬한 실로 충격적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곧바로 한반도 내의 미핵무기도 곧 철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한반도는 핵전쟁으로부터 안전하고 따라서 우리도 이제 반핵운동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도록 하자.

'뉴욕 타임즈' 20일자에서는 미 행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보도하며 '한국에서 공중핵을 철거하는 대신에 다른 곳에 배치된 장거리 핵미사일과 광도에 있는 B-52폭격기로 한국을 계속 보호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또, '동아일보' 21일자에서

'정부는 미국언론의 보도대로 한국에서 미핵무기가 완전철수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적체한 미 군함의 국내 항구 입출항(Port Call)과 핵 적재 미공군의 영공통과(Over Flight)는 계속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적으로 방지하는 '비핵지대화'와 원칙적으로 반대되는 완전 철거는 가리고 이용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란 핵무기의 제조, 보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실은 항공기가 영공에 들어오는 것을 비롯, 핵재제 잠수함, 선박이 영해로 들어

결론전은 전세계에 미국 무기의 성능을 눈으로 보여 주는 화려한 신형 무기소 이자 미 군산복합체의 전면광고(?)였다. 굳이 권리와 이용이 거주장소라는 핵 무기를 쓰지않더라도 첨단전자무기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신속, 정확하게 '작살'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한대전의 중심은 소위 전자 시대에 걸맞게 전술핵무기-첨단통신무기(CDI)로 무기체계가 변화하였고 이에따라 미국은 각종신무기를 개발하여 이것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남한 군부가 팔로 미국으로서 가장 좋은 '밥'임에 틀림없다. 작년 한 해 미국의 최대 무기수출국은 바로 남한이었다(남한 35억달러 구매). 더구나 전술핵의 공백을 메꾸어달라는 등 각종감언이설로 어리석은 남한 군부정권을 부추여 대대적인 무기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국방부는 내년에산중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12.9%)을 표명하고 있다.

세계적인 탈 냉전의 무도, 북한의 적극적인 군축제외에도 불구하고 외국 산무기로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하겠다는 것은 현정부의 사대외교를 엿

핵철수, 한반도 주변 전술핵 재배치 수단 한국군 현대화... 재래식 첨단무기 판매 속셈

이대로라면 미국의 의사는 과거의 NCNDA 핵비밀주의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한국에게는 핵의 배치와 철수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원거리에서 장거리 핵미사일로 한반도를 공격할 것이며 광동에서 핵을 실은 전투기를 출격하며 잠수함이나 함대함에 실은 핵사발을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한반도의 영토상에 두지 않겠다는 것 뿐이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외곽에서 공격-즉 해상핵이나 공중핵으로 보호(?)하여 또 미 본토를 원거리에서 지상발사핵무기를 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제공화했다는 소위 '핵우산'의 실체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철수선언의 실상은 한반도가 핵공격 대상이되거나 핵전장화되는 것을 근

오거나 기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핵 강대국인 미·중·소가 한반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보증을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 했을때만 전진로 한반도는 핵전쟁위기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지 한반도 영토내의 핵무기를 잠시 비움으로서 -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하여 - 한반도의 반핵운동을 잠재우고 북한 핵사찰 압력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전술핵철거로 남한의 전력에 공백이 생겼다는 면서 이것을 신형무기로 채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음이 미 무기수출을 위한 속셈이다. 지난

불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외부적인 평화의 조건이 주어진 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과 군부의 자발적 양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깨달아야 한다. 오로지 건전한 생각을 가진 우리 민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미전술핵철거(비핵화)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핵위기로 부터 벗어나는 비핵지대화운동을 펼쳐나가야한다.

이와 동시에 국방비삭감투쟁을 벌임으로서 시대착오적, 반민족적 세력의 작태에 실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항해야 할 것이다.

조인숙

(반핵평화운동연합정책위원)



人材/技術/에너지/國力

韓國電力公社와韓國原子力研究所가 출자한政府再投資機關인韓國電力技術株式會社는1975년 설립이래原子力發電所를 위시한 각종發電所의綜合設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발전소 종합설계를 위해서는 기계, 토목, 전기, 원자력, 건축, 환경, 계측 제어, 전산 등 다양한 공학기술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2,000여명의 각 분야 고급 전문가들이 모인韓技는 원자력 산업계의 유일한 종합설계기술용역회사로서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확고한 신뢰와 명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내 석사대우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韓技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직장인으로서의 유쾌한 미래와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적 과업을 수행한다는 기술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해 줄 것입니다.

(新入社員募集 要綱은 11月中 日刊紙에 公告)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7번지
TEL : (02) 540-7701 (대) FAX : (02) 540-4184